임영애 동국대 교수 "불교미술은 성보"

제13회 반야학술상 시상식 11월 5일 열려

저서 〈금강역사상〉 등 높이 평가
수상자에 상패와 상금 1000만원
임 교수 "성보 가치 더 알리겠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불교미술은 성보(聖寶)입니다. 성보는 단순히 미술품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입니다. 불교미술을 심미적 관점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불교경전을 바탕으로 부처님 말씀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대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제13회 반야학술상을 수상한 임영애 동국대 교수는 11월 5일 사단법인 반야불교문화연구원이 통도사 반야암에서 개최한 시상식을 통해 불교미술의 가치를 강조하며 이같이 소감을 밝혔다.

시상식에는 반야불교문화연구원장 지안 스님과 김성태 반야불교문화연구원 이사장, 강경구 부원장, 구자상 동의대 교수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반야연구원은 연구 공로와 학술 성과로 불교 학술 발전에 이바지한 임 교수에게 상패와 함께 상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임영애 교수는 "저의 연구 기준은 한국 불교미술의 정체성, 불교조각과 왕릉조각의 관계, 성보의 가치를 가진 불교미술이었다"며 "불교미술이 좋아 한눈팔지 않고 달려온 것밖에 없는데 큰 상을 주시니 몸 둘 바를 모르겠다. 성보의 가치를 알리는데 더욱 정진할 것"이라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수상자 임영애 교수는 이화여대 미술사학과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경주대 교수와 중앙아시아학회장, 각 지역 문화재위원을 역임했다. 현재 동국대 문화재학과 및 대학원 미술사학과 교수로 활동 중이며, 동국대 박물관장과 불교학술원 문화재연구소장도 맡고 있다. 또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문체부 전통사찰운영위원회 위원, 조계종 성보보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임 교수는 중앙아시아와 통일신라 불교조각의 관계성에 대해 연구해왔으며 올해 발간한 〈금강역사상-간다라에서 신라로의 여정〉은 동국대 저서출판지원사업에 선정돼 출간한 연구서다. 책에 실린 160여 장의 간다라, 중앙아시아, 중국, 한국의 금강역사상은 임 교수가 직접 촬영했으며, 학술내용도 간다라에서 신라에 이르기까지의 긴 여정을 살펴 학술적으로 깊이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국제저명학술지에 실은 연구 성과는 한국 불교미술, 특히 석굴암을 비롯해 경주 남산 등 신라 불교미술의 우수성을 세계 학계에 널리 알리는데 이바지했다.



제13회 반야학술상을 수상한 임영애 교수와 연구원장 지안 스님.

원장 지안 스님은 "수상한 임영애 교수를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반야불교문화연구원은 창립 이후 연구 발전과 일반 재가자를 위한 강좌를 열고 지성화에 앞장서왔다. 이렇게 결실을 맺고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 온 것은 모두의 성원과 도움 덕분"이라고 인사말을 했다.

김성태 이사장은 "반야학술상은 불교문화 연구 분야에서 업적이 뛰어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학자를 격려하기 위해 제정됐다"며 "앞으로도 반야학술상이 불교문화 연구 발전에 기폭제가 되고 불교문화의 수승함을 찬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상식에 이어진 강연에서 임 교수는 '석굴암의 유마거사'를 주제로 "유마거사는 재가자인데 경전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보살의 반열에 함께 자리를 갖춘 분"이라며 "석굴암 감실에 있는 유마상은 경전 내용과 일치하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석굴암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청소년합창제 '장안제일고' 대상

부산파라미타협회, 11월 5일 부산문화회관서

(사)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협회장 백명숙)는 11월 5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제14회 대한민국 청소년합창제'를 개최했다. 합창제에는 본선을 통과한 금정중 '금정쇼콰이어', 장안중 '벨라보체', 서면중 '더블에스', 장안제일고 '장안제일콰이어', 항도중 '항도쇼콰이어'가 경연을 펼쳤다. 합창제 대상은 장안제일고의 '장안제일콰이어'가 수상했으며, 금상은 장안중 '벨라보체'가 수상했다.〈사진〉

'장안제일콰이어'는 2017년부터 고등학교 합창발표회 및 교문합창제전에 참여했으며 제6회 부산청소년열린축제에서 대상을 수상한바 있다. 아울러 부산광역시 주최 2019년 부산 V-Festival, 지역주민을 위한 제1회 예술의 밤 합창페스티벌 등 지역문화 축제에서 초청공연을 펼쳤다. 장안제일고는 학생들의 감성적 역량 및 공동체 의식을 위해 합창단 활동을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학생들의 예술적 재능을 꽃피우도록 교육하고 있다.



백명숙 부산파라미타협회장은 "합창은 학생들에게 화합과 공동 성취의 즐거움을 누리도록 돕는 하모니의 장"이라며 "우리 청소년들이 성장의 시기에 예술과 우정을 익히고 풍요의 삶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축사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 금용사, 국운융창 기원 천도재

11월 7일, 부산영산재보존회 초청해 지역민 안녕 기원

부산 금정산 금용사(주지 동암)가 11월 7일 금용암 경내에서 산신재 및 천도재를 봉행했다.〈사진〉 금용사는 부산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보존회를 초청해 지역민의 안녕과 국운융창을 발원했다.

금용사 주지 동암 스님은 "부산영산재보존회 스님들께서는 평생 진언과 작법으로 수행하신 분들"이라며 "이런 귀한 자리 함께한 공덕으로 부처님의 복덕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부산영산재 보유자 경호 스님은 "아무리 세상살이가 힘들어도 입가에 웃음만 잃지 않고 산다면 모든 업이 사라지고 복이 들어오게 된다"며 항상 즐거운 마음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한편 행사에는 부산영산재 후보 보암 스님, 작법 전수조교 원산 스님, 바라 전수조교 혜화 스님, 이수자 무진 스님, 보현 스님, 주원 스님과 장학생 혜광 스님, 천상 스님, 지승 스님, 교육생 스님들이 함께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사찰 후원 덕에 5급 공무원 시험 합격

부산대 후원하는 천불정사
행정·기술고시 합격자 축하

인재불사도량 천불정사(회주 고담)가 후원하는 부산대 '신목정'과 '고담 기맥정'(행정·기술고시 준비생을 위한 공간)에서 공부하던 3명이 5급 행정·기술고시에 합격했다. 천불정사는 11월 4일 경내에서 법회를 열고 합격자들을 초청해 축하했다. 이 자리에서 합격자 김종원(12학번), 윤혜원(13학번), 김성목(16학번) 씨는 회주 고담 스님과 주지 법경 스님을 비롯해 신도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천불정사는 꽃다발을 전달하고 합격자들을 격려했으며 강재호·박희정 담당교수가 후원에 대한 감사인사를 했다. 아울러 합격자뿐만 아니라 '신목정'과 '고담 기맥정'에서 5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을 초청해 만찬을 제공했다.



부산대 5급 공무원 시험 합격자들을 위한 축하의 자리를 마련한 천불정사.

최근 새롭게 주지로 취임한 법경 스님 "인재불사를 위해 앞장서신 회주 고담 스님의 뜻을 이어 앞으로도 천불정사는 나눔과 자비의 도량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행정고시에 합격하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전하며 여기 오신 모든 학생들도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회주 고담 스님은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의 삶이 풍요롭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공양과 선물을 마련했다"며 "합격자와 공부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 건강하고 앞으로도 노력한 결과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축원했다.

윤혜원 학생을 비롯한 합격자들은 "오랜 기간 힘겹게 준비를 했고 마침내 좋은 결과를 얻었다"며 "신목정과 고담 기맥정 후원 덕분에 효율적으로 시간을 쓸 수 있었고, 어려울 때마다 힘이 됐다"고 인사했다.

천불정사는 지난 2006년부터 16년간 신목정과 고담 기맥정 학생들에게 숙식을 제공해왔다. 매년 장학기금 1000만원을 후원해 총 1억6000만원을 부산대에 기탁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제10회 부산기장 국체茶문화축제

허황후대상 고선희·김수로대상 박희준 수상

(사)향기로운문화동행(이사장 보혜)이 11월 5일 부산 정관 중앙공원 일원에서 '제10회 부산기장국체차(茶)문화축제'를 개최했다.〈사진〉 아름다운 찻자리 심사대회를 비롯해 시민을 위한 세계 6대 다류 시음찻자리도 이어졌다.

(사)향기로운문화동행은 차문화 발전에 이바지한 차인을 선정해 허황후차인대상과 김수로문화대상 등을 수여했다. 올해 허황후차인대상은 고선희 문경차문화연구원장이, 김수로문화대상은 박희준 다유락차문화원 대표가 수상했다. 또한 동행복지대상은 이순희 기장군장애인협회장, 동행공로상은 (사)향기로운문화동행 이사 서인 스님이 받았다.



이사장 보혜 스님은 "10회를 맞이하여 앞으로 더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며 모두 행복하시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한다"고 말했다.

범어사 방장 정여 대종사는 "다도 문화가 더욱 발전하고 기장지역이 품격 높은 문화도시로 거듭나는데 일조해 전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행사에는 범어사 주지직무대행 정오 스님, 영도구불교연합회장 호법 스님, 사상구불교연합회장 성림 스님, 안병윤 부시장, 하윤수 교육감, 정동만 국회의원, 정종복 기장군수 등이 함께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김해 불인사, 청소년 장학금

중학생·그룹홈 가정 지원

김해 불인사(주지 송산)가 11월 5일 경내 2층 미소마당에서 '장학금 전달식 및 작은 음악회'를 개최했다. 장학금 전달식에는 불인사 주지 송산 스님, 원담 스님, 김재호 경남파라미타 회장, 고불학당 총동문회 회원 및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장학금은 유태희 학생(율하중) 외 13명에게 각 30만원과 그룹홈 가정에 70만원 등 총 490만 원이 전달됐다. 행사는 △개회 △한우리합창단 축하곡 △환영사 △축사 △음악회 △장학금수여식 △기념촬영 및 회향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진 작은 음악회는 이병영의 대금독주와 석동호의 톱연주, 이수정 소프라노의 무대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다.

송산 스님은 "이 자리가 꿈을 이루기 위한 디딤돌이 돼 희망의 날개를 펼칠 수 있길 바란다"며 "학생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열심히 노력해 목표가 실현될 때 까지 용기를 잃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사명대사 발자취 탐방 떠나는 중학생들

밀양 홍제중 '홍제원정대'
11월6일, 일본탐방 출정식

동국대 사범대학부속 밀양 홍제중학교(교장 김정우)가 11월 6일 교내 홍제관에서 '밀양 얼 프로젝트-홍제원정대 일본 탐방' 출정식을 개최했다. 홍제원정대는 밀양의 3대 얼 중 하나인 사명대사의 국내외 행적을 탐방하면서 그 정신을 잊지 않고 이어가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이번 프로젝트는 '사명대사의 발자취를 따라서'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홍제원정대의 국외 탐방을 위해 홍제중학교는 홍제골든벨 행사를 개최했다. 골든벨에서 수상한 초등학생 3명은 홍제원정대 대원으로 추가 선발됐다. 홍제원정대는 홍제중 학생 29명과 골든벨 수상자 초등학생 3명을 비롯해 지도교사 및 스님 등 총 39명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이번 홍제원정대 후원을 위해 밀양 표충사 500만원, 오선암 600만원, 지역민 후원금 400만원, 삼랑진양수발전소 1300만원 등 후원이 이어졌다.


밀양 홍제중학교가 11월 6일 교내 홍제관에서 '밀양 얼 프로젝트-홍제원정대 일본 탐방' 출정식을 개최했다.

출정식에는 표충사 주지 진각 스님, 오선암 일연 스님, 김정우 홍제중 교장, 차경자 삼랑진중 교장, 최진관 동명중고교장, 골든벨 수상자 미리벌초 배지호 외 학생 및 학부모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표충사 주지 진각 스님은 "학생들의 목소리에서 사명대사의 충혼이 느껴졌다"며 "적군 앞에서도 백성을 구하기 위한 애민의 정신과 자세를 배워 당당함과 큰 포부를 안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정우 교장은 "밀양을 빛낸 영웅들을 알고 역사를 바로 알아 지혜를 갖추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사명대사의 정신을 잇는 마음으로 출정식과 행사에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제원정대 일본 탐방 일정은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교토, 오사카, 나라 지역 등을 방문한다. 이 지역은 사명대사가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회담하고 조선인 포로 3000여 명을 구출해 온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옥천암, 산신재·자비의 쌀 나눔

주지 대각 스님 "어려운 경제에도 뜻깊은 후원"

자비나눔실천도량 부산 황련산 옥천암(주지 대각)이 11월 4일 옥천암 경내에서 '2023 산신재 및 행복 쌀 나눔 잔치'를 개최했다.〈사진〉 행사에는 옥천암 주지 대각 스님, 관음사 주지 천웅 스님, 오은택 남구청장, 박수영·박재호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옥천암은 행사에서 자비의 쌀 10kg 108포, 총 1080kg을 오은택 남구청장에게 전달하며 이웃과 함께하는 행사 의미를 더했다. 주지 대각 스님은 "세계가 혼란스럽고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아낌없는 후원을 해주신 신도님들 덕분에 뜻 깊은 행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인사했다.

오은택 구청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매년 나눔행사를 하시는 옥천암 스님과 신도님들 덕분에 우리 남구가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고 있어 스님과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옥천암 산신재는 1985년 7월 5일 문현동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영가들을 위한 위령재다. 옥천암은 2014년부터 매년 산신재를 봉행하고 자비의 쌀을 지역민에게 전달하면서 지역민의 건강과 화합을 기원하고 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